

‘임을 위한 행진곡’ 첫 녹음 오정목 테이프 복원

38년만에 다시 듣는 ‘80년대 민중가요’

“5·18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80년 겨울, 참담함과 쓸쓸함을 노래했죠. 청년 시절 제 목소리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 들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첫 가수였던 오정목(62) 전 광주MBC PD가 부른 민중가요 카세트 테이프가 38년 만에 디지털 음원으로 복원됐다. 복원 작업은 오씨의 오랜 친구이자 가수 겸 음반제작자로 활동하는 박문옥씨가 맡았다.

이번에 복원된 음반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소리모아’의 공연에서 공개된다. 오씨와 함께 세 번째 ‘더힐링 콘서트’를 여는 ‘소리모아’ 멤버 박문옥, 박태홍, 최준호씨는 이날 복원 앨범 대표곡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의 코러스로 나서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소리모아 스튜디오’에서 공연 연습이 한창인 이들을 만났다.

이들은 석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연습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에서 영상제작사를 운영하는 오정목씨와 광주에서 활동하는 소리모아 멤버들은 바쁜 일정에도 전남대에서 맺어진 42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소리모아’는 1977년 1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창작곡 ‘저녁 무렵’으로 동상을 받으면서 광주·전남 창작 포크송의 시작을 알렸다.

테이프 녹음 당시 오씨는 스물다섯 청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기타 한 대와 카세트 녹음기 하나로 밤을 새워 29곡의 민중가요를 홀로 부르고 녹음했다. 테이프에는 ‘이세상 어딘가에’, ‘금관의 예수’, ‘타박네’, ‘친구’, ‘호남 농민가’, ‘(독립)출정가’ 등 5·18 직후 불렸던 여러 장르의 저항노래들이 담겼다.

“처음에는 혼자 들을 심산으로 만든 테



38년 만에 복원된 오정목씨의 민중가요 음반.

친구인 박문옥씨가 복원작업 ‘금관의 예수’ 등 29곡 담겨 12일 소리모아 공연서 공개 관객들에 음반 무료 제공

이프였는데 어느 날 친구 은우근(현 광주대 교수)이 500개 정도 복사본을 만들어 전국에 퍼뜨렸어요. 테이프를 팔고 남은 돈은 민주화 동지들의 영치금과 도피자금으로 요긴하게 썼어요. 시간이 흐르니 테이프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고 지냈죠.”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테이프는 지난 가을 모습을 다시 드러났다. 소리모아 후원 회원인 최연석 목사가 오씨에게 그동안 간직해온 테이프를 건넨 것이다. 테이프들은 박문옥씨는 ‘노래운동의 역사’의 한 편을 장식할 만한 귀중한 자료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오는 12일 콘서트를 여는 최준호(왼쪽부터), 오정목, 박태홍, 박문옥씨.

“오정목의 노래에는 80년 오월 당시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유의 갈망이 호홉마다 느껴져요. 녹음기 누르는 소리, 테이프 길이가 다 돼 노래 중간에 ‘뚝’ 끊기는 소리마저 가슴이 뭉클해서 지을 수가 없었어요. 38년 묵은 카세트 음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했기에 최대한 원본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테이프는 소설가 황석영에게도 들려졌다. 5·18민중항쟁 2년 뒤인 1982년 4월 북구 운암동에 살던 황석영의 집에 김종률, 전용호, 오정목 등 지역 문화운동가들이 모여들었다. 5·18 2주기 행사를 준비하던 이들은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다룬 노래극 ‘넋풀이’를 만들었다. 이 ‘넋풀이’에 수록된 7곡 중 대미를 장식한 곡이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오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첫 테이프 녹음을 한 주인공으로 기록됐다.

38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음성에 대해 “돌아오지 않는 청춘”이라 이름 붙였다. “앨범 표지에 실린 제 얼굴 속 눈빛 살아

있지 않나요? 헝기 넘치던 때라 모든 노래를 ‘전이에 불타’ 불렀어요. ‘잘가오’나 ‘내일이 오면’은 이별에 관한 노래인데도 힘이 잔뜩 들어갔죠. 이제는 40년 지기 소리모아와 함께 잘 익은 하모니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했던 이들이 서른여덟 번의 계절이 바뀌어 부르는 노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소리모아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여는 이번 공연은 소리모아 앨범 수록곡, 7080 팝송 등으로 꾸며진다.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록그룹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 ‘위 윌 락 유’가 장식한다. “누가 프레디 머큐리를 말냐”는 질문에 떠나 할 것 없이 ‘멤버와 관객 모두가 프레디가 될 것’이라 한 목소리를 냈다.

비매품인 복원 음반은 이날 공연에 참석한 관객에게 무료로 배부된다. 전석 2만 5000원. 문의 010-6548-2191.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16번째 공연

14일 광주예총 공연장

한국가곡을 시민들과 함께 부르고 배우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의 116번째 공연이 오는 14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다.

송년자선음악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남구 봉선동 노틀담형제의 집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박호진 씨의 노래지도 아래 황인화, 신은정, 정혜련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고 21개 팀 중창단 포함한 28명의 회원들이 무대를 꾸민다.

먼저 모든 참가자가 부르는 ‘다 함께 부르는 노래’로 이은상의 시로 흥난파가곡을 만든 ‘옛 동산에 올라’로 무대의 문을 연다. 이어 메조 소프라노 남신과 소프라노 심옥효가 ‘그대는 그냥’으로 호흡을 맞추고 테너 김중석이 ‘사랑하는 마음’을, 테너 박상휘가 ‘눈’을 부른다.



테너 강동명

이안상의 ‘내 마음 깊은 곳에’를 한마음시니어창의 하음으로 만나고 행복어 올림합창단이 황성철의 지휘와 함께 ‘꽃 잎아’와 ‘섬집 아기’로 하모니를 선사한다. 또 시낭송가 서혜란씨는 한희원의 시 ‘내 영혼의 빈터’를 낭송한다.

이달의 초청 성악가는 테너 강동명이다.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그는 KBS 교향악단, 광주시향과 협연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동명은 이날 ‘별을 깨는 밤’과 ‘첫사랑’을 무대에 올린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합창단 ‘헨델 메시아’ 영상으로 만난다

13일 아트스페이스

국립합창단의 ‘헨델 메시아’ 공연을 영상으로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썩 온 스크린’ 기획으로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국립합창단의 ‘헨델 메시아’를 상영한다.

2시간 동안 상영되는 영상은 지난 2016년 12월 구천 국립합창단 상임지휘자가 지휘한 정기연주회를 촬영한 것이

다. 소프라노 김영미, 알토 백재은, 테너 김기찬, 베이스 박준혁이 함께했으며 관현악 연주는 ‘카메라타 안티코 서울’이 맡았다. 영상에서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 결장으로 손꼽히는 ‘메시아’의 1부 ‘예안·탄생’, 2부 ‘수난·속죄’, 3부 ‘부활·영생’으로 무대를 꾸민다.

오는 2019년 1월 9일 오후 8시에는 ‘예술의전당 2019년 신년음악회’를 실황 중계한다. 전석상 100명 무료 관람. 예약 062-670-79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과거와 오늘 토대로 아시아 탐구하다

ACC 13~15일 국제포럼

과거와 오늘을 토대로 아시아를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ACC)은 13일부터 15일까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ACC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시제 전환: 비동맹운동과 제3세계 그리고 아시아 예술’.

첫째 날은 오후 2시부터 ‘다시 아시아를 역사화하기: 아시아 비동맹운동의 궤적과 의의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다.

비자이 프라사드 감독(트리콘티넨탈 사회연구소), 천광성 교수(대만 국립고통대학 사회문화연구소), 김향 교수(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등이 참여하며 비자이 프라사드는 ‘아시아라는 개념은

성립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둘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비동맹운동과 제3세계의 예술을 알려왔던 큐레이터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섹션이다.

서동진 교수(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의 사회로 발리 말루지(큐레이터), 보야나 피스쿠르(류블라나 현대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아이올라 렌지(큐레이터, 미술사가), 요헨 베커(큐레이터) 등이 참여해 미래 잠재성을 재발굴하는 예술적 실천들을 그려본다.마지막 날(15일)은 비공개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며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http://www.acc.go.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못생긴 당신’ 나주서 공연

예인방 13~14일 문예회관

중견 배우들의 열연을 감상할 수 있는 연극 ‘못생긴 당신’이 나주에서 공연된다.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은 열 번째 창작연극으로 ‘못생긴 당신’을 오는 13일 오후 7시, 14일 오후 4시·7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 지난 1981년 창단한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은 총 350여회가 넘는 작품을 발표한 전문연극단체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못생긴 당신’은 억척같이 생긴 장사로 돈을 모은 덕

자와 덕자 덕에 무위도식하는 남편 오철의 이야기를 다뤘다. 덕자는 불치병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 받고, 오철은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며 서로 마음을 열게 된다.

연극은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안락사를 다뤄 물질적인 세태를 다시 돌아보자는 취지를 담았다. 전남연극제 대상을 받은 배우 임은희가 덕자 역을, 배우 김호영이 오철 역을 맡았다. 또 중견 연기자인 홍순창, 김태라, 이효진, 정미마 등이 출연한다. 문의 1588-60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극 ‘못생긴 당신’ 주연을 맡은 배우 김호영(뒤)과 임은희.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흥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합,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양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루팡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셜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